

서울보증보험 기업공개(IPO) 일정에 대해 확정된 바 없습니다.

- 서울경제 5월 15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-

1. 기사내용

- 서울경제는 5월15일 「몸값 3조 서울보증보험, 내달 예심 청구」 제하의 기사에서, “정부가 기업공개(IPO)를 추진 중인 서울보증보험이 다음 달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한다.”라고 보도하였습니다.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

-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기업공개(IPO) 일정은 현재 관계기관이 실무적으로 논의 중인 단계로,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습니다.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담당 부서	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	책임자	과 장	진선영 (02-2100-2910)
		담당자	사무관	최성규 (02-2100-2911)
	예금보험공사 금융안정기획부	책임자	부 장	송성명 (02-758-0301)
		담당자	팀 장	오종진 (02-758-0320)